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연구원 안혜영 (mith5@hanaif.re.kr)
 수석연구원 정귀수 (gsjeong@hanaif.re.kr)

<http://www.hanaif.re.kr> 2006년 8월 28일 제 63호

국내 제약 산업의 환경 변화와 전망

▶ 국내 제약업계 동향

- 현재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른 의약품의 양적 질적 성장, 병원수의 급증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 증가율을 2배 이상 앞서고 있음
- 의약품업 실시 이후 우수한 제네릭 제품을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임

▶ 최근 국내 제약계의 환경변화

- 외국계 제약사들은 막강한 브랜드력과 제품개발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체 제약 시장 중 3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국내 제약사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또한 국내 제약시장의 전문의약품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외국계 제약사가 매우 양호한 수익성 유지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제네릭 제품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에 따라 중·소형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M&A 모색하고 있음.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져 2006년 상반기 제약부문 무역적자 수지가 최대를 기록함
-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이어,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끝나 이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에 등재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 및 외국 제약사의 이익 감소가 예상됨
-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특허기간 연장 및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임

▶ 국내 제약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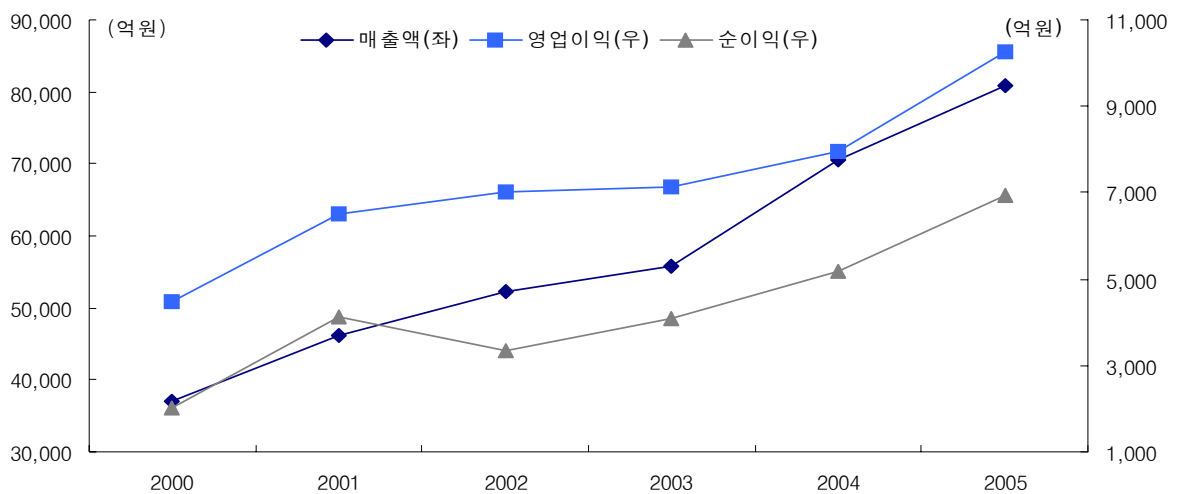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국내 전문의약품 판매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2010년 까지 연평균 10%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까지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만료 지속으로 국내 제네릭시장의 확대는 계속될 전망
- 제약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FTA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술력이 뒤처지는 중소형업체들의 퇴출을 가지고 올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위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1. 국내 제약업계 동향

■ 국내 제약 산업 지속적인 성장세

- 현재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른 의약품의 양적 질적 성장과, 개인 병원 및 중소의원수의 급증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5년 기준, 국내 제약 산업은 상위 50개 기업 기준, 총 매출이 8조770억원으로 전년대비 14.38% 증가하였으며, 2000년 3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총 매출액은 2005년까지 연평균 약 17.1%씩 증가하여 세계시장의 증가율인 7%대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음
- 상위 50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0년부터 연평균 18.9%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조240억원에 달하였으며, 순이익 또한 2000년 2,01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3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05년 6,9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 업체별로는 동아제약이 1위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가 그 뒤를 이어 5위권을 형성함.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제품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한 제네릭 제품을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임

그림 1 의약품 시장 규모 추이



주: 매출액 상위 50개사 기준
 자료: 제약협회, 각사자료

2. 최근 국내 제약계의 환경변화

▶ 외국계 제약사의 이익증가

■ 외국계 제약사의 안정적인 수익성 추세

-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외국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급격히 가속화 되면서 상위 50개 제약사 중 외국계 제약사가 1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매출액은



약 2조 5300억원 규모로 전체의 매출액의 3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의약품 생산실적 10대 품목 중 외국계 제약사의 품목이 5개에 달하고 있어 외국계 제약사들이 제품 개발능력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국계 10대 제약사의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계 10대 제약사의 2005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13.8% 증가한 1조 9,362억원인 반면 국내 10대 제약사의 2005년 매출액은 3조 2,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여 국내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외형적인 성장에서는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국내 10대 제약사가 약 4,133억원으로 전년대비 30.8%로 늘어난 반면 외국계 10대 제약사의 2005년 영업이익은 약 2,7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5%의 폭으로 증가함
- 순이익에서도, 국내 10대 제약사의 2005년 순이익이 총 2,881억원으로 전년대비 28.1% 증가하였으나, 외국계 10대 제약사의 경우는 순이익이 총 1,891억원으로 전년대비 52.1%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사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을 보인 반면 수익성에 있어서는 외국계 제약사가 큰 성장세를 보임

표 1 국내 10대 제약사 영업실적 (단위:백만원,%)

순위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05년	2004년	증감율	2005년	2004년	증감율	2005년	2004년	증감율
1	동아제약	533,624	541,214	-1.4	44,667	45,650	-2.15	25,238	26,575	-5.03
2	유한양행	391,986	340,405	15.15	61,771	48,413	27.59	63,498	60,786	4.46
3	한미약품	376,541	317,010	18.78	47,316	34,896	35.59	42,147	30,165	39.72
4	대웅제약	338,165	280,396	20.6	51,107	34,248	49.22	35,237	25,878	36.17
5	녹십자	336,435	112,427	199.25	32,000	3,732	757.45	29,156	8,801	231.28
6	중외제약	311,357	303,167	2.7	36,901	38,643	-4.51	15,120	13,871	9.00
7	제일약품	248,608	221,087	12.45	14,955	21,049	-28.95	12,335	17,396	-29.09
8	종근당	235,774	186,220	26.61	61,375	34,776	76.49	24,762	15,616	58.57
9	일동제약	227,481	197,320	15.29	35,675	31,417	13.55	19,931	9,067	119.82
10	광동제약	216,003	187,288	15.33	27,503	23,067	19.23	20,720	16,784	23.45
	소계	3,215,974	2,686,534	19.71	413,270	315,891	30.83	288,144	224,939	28.10

자료: 제약협회, 각사자료

표 2 외국계 10대 제약사 영업실적 (단위:백만원, %)

순위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05년	2004년	증감율	2005년	2004년	증감율	2005년	2004년	증감율
1	GSK	305,737	228,689	33.69	42,229	7,717	447.22	35,101	1,662	2011.97
2	한국화이자	255,340	257,745	-0.93	44,780	43,893	2.02	44,814	39,971	12.12
3	바이엘	235,115	208,240	12.91	14,449	16,486	-12.36	9,996	12,582	-20.55
4	한독약품	234,493	241,497	-2.9	28,588	28,760	-0.60	15,908	13,079	21.63
5	한국MSD	188,150	173,936	8.17	33,801	29,268	15.49	21,049	17,518	20.16
6	노바티스	193,004	161,992	19.14	36,244	27,678	30.95	19,151	14,498	32.09
7	한국안센	153,718	137,641	11.68	13,725	11,254	21.96	7,164	5,104	40.36
8	아스트라	131,702	105,286	25.09	15,530	5,324	191.70	8,185	734	1015.12
9	한국로슈	125,072	91,479	36.72	27,661	6,783	307.80	18,392	4,355	322.32
10	한국달리	113,931	105,853	7.63	13,162	17,957	-26.70	9,293	14,800	-37.21
	소계	1,936,262	1,712,358	13.08	270,169	195,120	38.46	189,053	124,303	52.09

자료: 제약협회, 각사자료

■ **외국계 제약사의 경쟁력 원천**

- 외국계 제약사는 막강한 브랜드력, 제품개발능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시장 확보를 통해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신약개발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고도의 기술과 거대한 자금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필요로 함. 2005년 기준 세계 5대 제약 회사의 R&D 투자 비용은 평균 매출액 대비 약 16%에 달하는 금액인 52억 달러의 규모임. 국내 5대 제약회사의 R&D 투자비용은 매출액 대비 5% 수준인 약 2,000만 달러에 불과 해 세계 수준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황
- LG 생명과학은 ‘팩티브’ 개발을 위해 40여 개국 1500여 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총 2,800억원이 투입 하였으나 세계적인 시장 확보와 브랜드력에 밀려 판매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개발 신약 9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385억7,200만원으로 이는 외국계 제약 회사인 한국화이자사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이는 국내 개발 신약이 다양한 질병에 적용이 어려우며, 외국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 또한 국내 시장에서 전문의약품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가운데,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외국계 제약사 제품은 매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음

표 3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현황

제품명	회사명	적응증	허가일자	시판단계	비고
선플라주	SK케미칼	위암	1997.07.14	시판	국내 최초 신약
콘드론	셀론텍	무릎연골세포재생	2001.01.30	시판	
EGF외용액	대웅제약	당뇨성 족부궤양	2001.05.30	시판	
조인스정	SK케미칼	관절염	2001.07.05	시판	
밀리칸주	동화약품	간암	2001.07.06	시판	
큐록신정	중외제약	요로감염증	2001.12.17	시판	
스티렌캡셀	동아제약	위염	2002.06.12	시판	
팩티브정	LG생명과학	호흡기감염증	2002.12.27	시판	국내 최초 신약
아파톡신주	구주제약	관절염	2003.05.03	시판	백신 종류로 넓은 의미의 신약
슈도박신주	CJ	녹농균 예방	2003.05.28	시판	
캄토벨주	종근당	난소암, 소세포폐암	2003.10.06	시판	
맥스마빌	우유	콜다공증	2004.11.18	2005년 4월출시	
레바넥스	유한양행	십이지장궤양	2005.09.15	2006년 하반기 시판 예정	
자이데나	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제	2005.11.29	2005년12월출시	

자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시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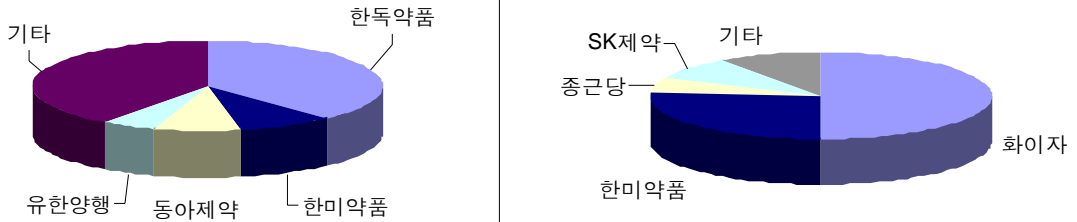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와 제네릭 제품 확대**

- 2003년 고지혈증 치료제 ‘조코’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만료가 2004~2007년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제네릭 영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2004~2005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된 대형 처방약의 경우 1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제약사들이 출시한 제네릭 제품들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에서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 혜택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의 노력으로 인해 제네릭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

그림 2 주요 특허 만료 품목의 시장 점유율 (좌: 글리메피드, 우: 아모디핀)



자료:이수유비케어 MDM,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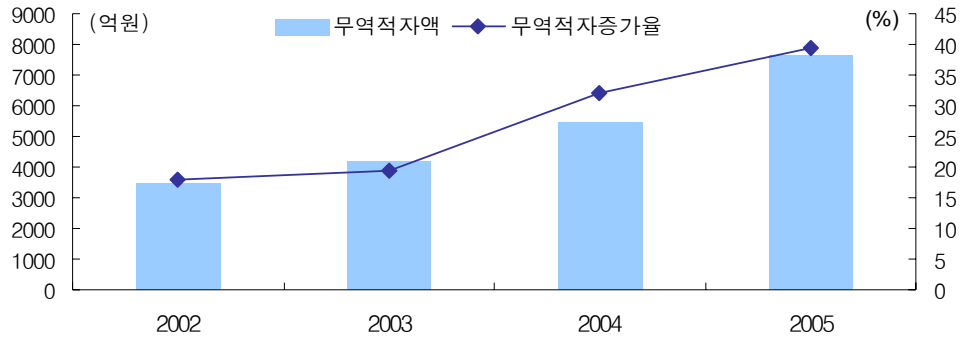
■ 제약업체간 M&A

- 향후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중소형 제약업체들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약업체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M&A 모색이 필요
- 해외에서는 제약사간 M&A가 활성화 추세 2004년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가 아벤티스를 인수하여 세계 3위의 제약회사로 올라섰으며 일본에서도 야마노우치가 후지사사를 인수해 대형 M&A가 이루어짐
-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이 전문의약품 사업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약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양사도 의약품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제약사 인수를 검토 중
- 제약업체간 M&A는 규모의 확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의 상승, 기술 개발력의 향상,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됨

■ 수입의존도 매년 급증

- 2006년 상반기 의약품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
- 올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수입액이 총 20억 113만 달러로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2%나 증가한 수치임. 이중 완제의약품 수입증가율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수입 역시 각각 32.6%, 49.4% 증가
- 반면 의약품 수출은 4억2,466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침. 부문별로는 원료의약품은 0.6% 증가하였으며, 완제의약품, 의약 외품도 각각 5.0%, 5.6% 증가에 그침

그림 3 원제의약품 무역적자 추이



자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 정부 정책 변화

■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 약값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이어,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끝나 이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에 등재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개정 됨
- 제네릭 의약품 가격도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5번째 약까지는 인화된 오리지널 약 가격의 80%로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가의 90%의 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함. 따라서 특허기간(20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 가격도 내리고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도 함께 하락하게 됨
- 제네릭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예전 정책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80%에서 최고가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가가 64%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상대적으로 국내사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됨
- 그러나 외국계 제약사 역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시장에 대한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 또한 20% 떨어진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외형 및 이익감소 불가피

■ 한-미 FTA의 영향

- 2006년 6월 5일 시작돼 2008년까지 계속될 한-미 FTA 본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제약 업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보험 약 선정 결과에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미국은 현행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인 20년에서 더 연장하고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현재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함.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복제약 가격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함

-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기존 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만을 혁신신약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모든 신약을 혁신신약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함

표 4 한-미 FTA 의약품분야 쟁점사항

미국	쟁점	한국
협상 타결때까지 기존제도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 사실상의 철회 요구	약재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제정 건전성 유지, 제약시장 개혁차원에서 추진 FTA협상 대상 아님
선진 7개국 수준의 약값 인정	신약 가격 산정	개별 효능에 따라 책정
특허기간의 연장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검토
타국 수준(오리지널의 50~60%)으로 인하	복제약 가격 산정	인하수위와 시기 검토

자료: 제약협회

3. 주요 제약기업의 경영전략

표 5 2006년 주요제약기업 경영전략

업체명	경영전략	주력제품	신제품
동아제약	자기제품육성, 제품별 마켓세어확대, 일반약 강화	스티렌, 가스터, 타나트릴 등	뇌대사개선제, 치매치료제, 불임치료제
한미약품	처방약시장 최강자, 연구개발확대, 글로벌화	아모디핀, 이트라, 트리악손 등	비만치료제, 불면증치료제 등 20개 제품
녹십자	신공장건설, 새로운 건강서비스 사업,	치료영역별 세분화 전문화	갱년기장애치료제, 성인 과상풍백신
유한양행	영업력, 처방력, 핵심품목 마케팅강화	레바넥스 등	AIDS치료제
중외제약	시장지향마케팅, 대형블록버스터 런칭강화 등	리바로, 글루페스트 등	수액4, 순환기5, 항암제2
GSK	제품군별 주요품목 선택과 집중	제픽스, 아반디아, 헵사라 등	고혈압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종근당	배축고도성장, 효율극대화, 교육강화	펜잘, 속칭, 야나다판, 아벨록스	아벨록스, 콜라잘, 큐엔데카
제일약품	100억원대 이상 9품목 시장안착, 책임경영	케펜텍, 무르페, 인히베이스, 란스톤 등	치매치료제, 고혈압치료제, 정신분열증
한독약품	선진마케팅도입, MR교육강화, 고객관리가와 등	미아리산아이지이에이, 테베텐	안과, 감염치료제, 폐동맥치료제
보령제약	선택과집중 30%신장, 기존제품 브랜드 강화 등	겔포스엠, 용각산, 시나롱, 아스트릭스	뉴로트로핀, 스토카, 구심골드액
광동제약	전문약시장 집중, 비타500롱런	하이치올, 아디렉스,	항암제, 순환기계용약, 비타민주사제
신풍제약	유통부문 전문화 세분화, MR제도 확산	크라목신, 록스펜, 하이알주 등	골다공증,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한국얀센	항암제, 중추신경계,진통제 등 3개 약효군 강화	리스페달 콘스타, 스포라노스	요실금치료제, 수술후 통증치료제
환인제약	정도영업, 평가업무시스템 재구축, PM품목전문화 등	아렌드징, 메타데이트	우울증, 간질치료제, 불면증치료제 등
동성제약	전문약시장 수출확대, 약국거래선 확대 등	정로환, 세븐에이트	고혈압치료제, 전신선비대증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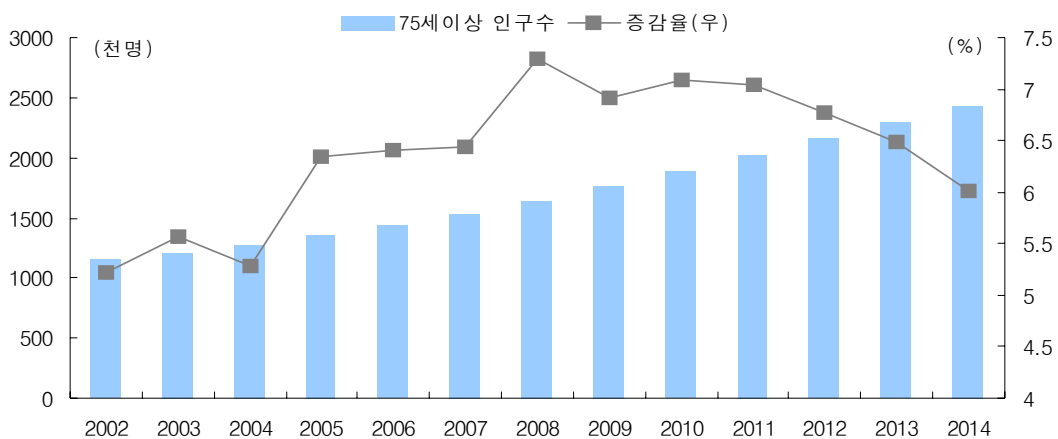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주요기업의 경영전략**

- 이러한 시장환경,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능력 제고, 전략적 제휴 등의 다양한 형태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동아제약은 자체 개발한 신약위염치료제 스티렌을 비롯한 제품들의 판매 성장을 바탕으로 한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 최상위의 신약개발능력을 통해 상업성 있는 처방의약품의 개발이 기대됨. 또한 정부 규제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적은 일반 의약품의 판매를 증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전망
- 한미약품은 뛰어난 자체 합성능력을 바탕으로 한 제네릭의약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성장성에서 한계가 드러날 경우 대비하여 자체 신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의 의약품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 녹십자는 상반기 매출이 13.5%증가한 가운데 경구용 ETC 및 태반제제의 매출 성장, OTC 신규성장을 통한 매출 성장을 통해 약 19%의 외형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백신원료 생산 공장이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완공 후에는 본격적인 생산 판매에 들어갈 전망
- 유한양행은 첫 번째 신약인 소화성궤양 치료제 레바넥스의 발매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품의 가격은 기존 제품들에 현저히 낮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대형 품목으로의 성장 가능성 기대함. 또한 핵심 주력 품목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력 강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제약산업의 전망

■ **그림 4** 75세 이상 인구 증가 추이 및 증가율



자료: 통계청

■ **국내 제약시장, 2010년까지 두자릿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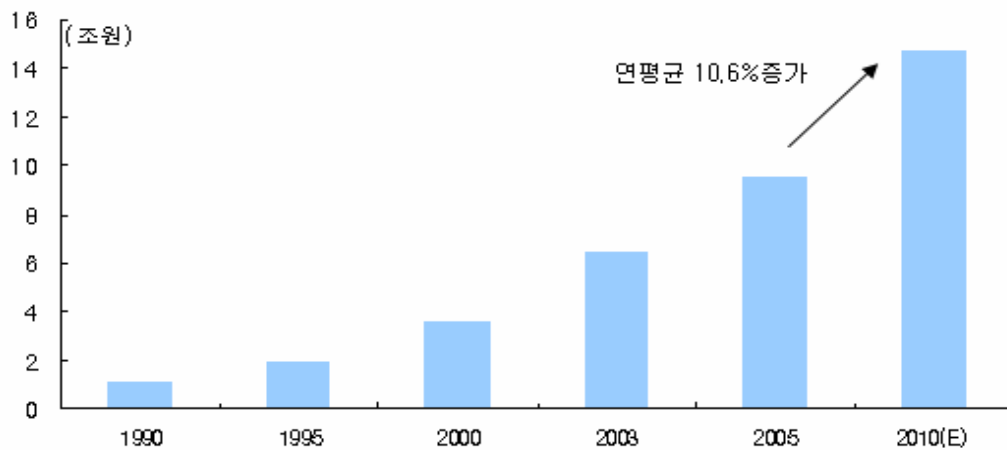
- 제약시장 성장세는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증가율이 2009~2010년에 최고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 판매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국내 제약시장 역시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정도의 성장세기 지속 될 것으로 예상

그림 5 의약품 시장 규모 추정



자료: 한국개발 연구원

■ 2008년까지 제네릭 시장의 확대는 계속될 전망

- 국내 제약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효능을 본떠서 만든 제네릭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최대의 신약 R&D 기업인 LG 생명과학 또한 신약 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 확보를 위해 제네릭 부분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2008년까지 오리지널 품목들의 특허 만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제네릭 시장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외형성장에 일조할 전망
- 오리지널 약품 대비 최대 80%의 가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퍼스트제네릭의 개발을 위해 국내 제약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판관비 부담의 가중은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러한 이유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개발과 출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제약사의 경우는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는 시장 선점에 실패했을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이 가중 될 가능성 내재 됨
-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에 비례하여 10~20%정도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나,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약가 인하에 따른 제네릭 제품의 매출 감소는 판매량의 증가로 일부 보완될 것으로 전망됨

■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최근 제약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한-미FTA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술력이 뒤쳐지는 중소형업체들의 퇴출을 가지고 옴에 따라 상위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제품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중소형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 업체수의 감소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상위업체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전망
- 또한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위업체들의 신약 상용화가 가시화 될 전망. 하반기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은 유한양행의 위염치료제, 동아제약의 불임치료제,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등으로 이들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